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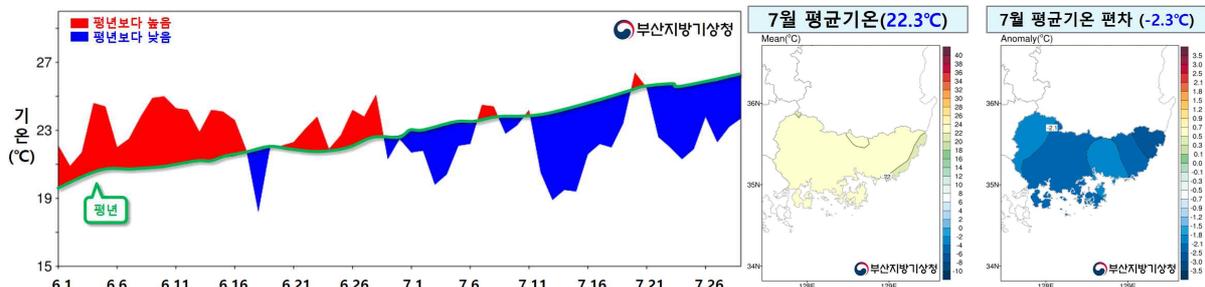
<b>배포일시</b>	2020. 7. 30.(목) 15:50 (총 5매)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
<b>담당부서</b>	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<b>담당자</b>	과장 홍기만 사무관 고희영
		<b>전화번호</b>	051-718-0433

## 7월 기온과 강수 분석, 8~9월 기상전망

- 7월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  -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,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·수축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장기간 영향을 미쳤음
- 8~9월 기상전망
  - 8월 이후 부울경 폭염 예상(폭염일수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)
  - 강수량은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- 향후 장마철 전망
  - 부울경 7.31. 장마철 종료
  - 제주도 7.28. 종료, 중부지방 8.10. 이후 종료

### □ 기온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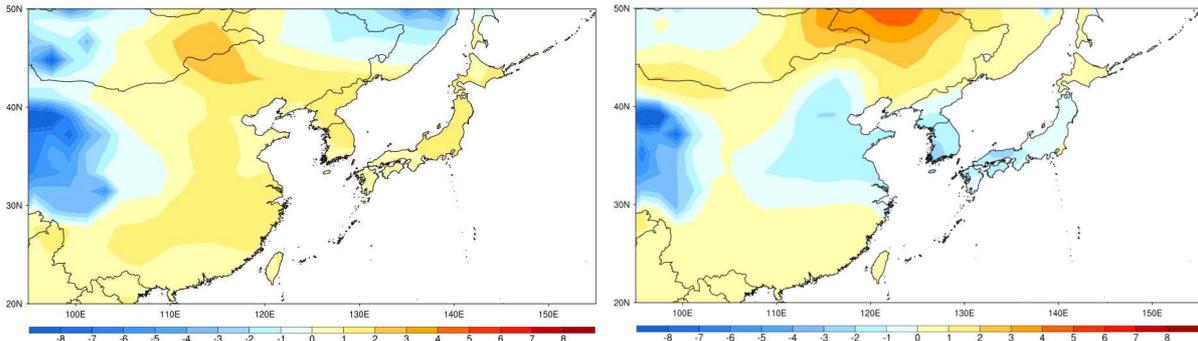
- 때 이른 폭염이 나타났던 6월과 달리 7월(1~29일)의 부울경 평균기온은 22.3℃(편차 -2.3℃)로 1973년 이후 45위, 폭염 일수는 0.0일(편차 -4.3일)로 46위, 열대야 일수는 0.3일(평년 -1.7일)로 42위를 기록하면서 선선하였습니다.
  - 이러한 경향은 중국 중부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.



【그림 1】 (왼쪽) 6월 1일~7월 29일 전국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, (오른쪽) 7월 1~29일 분포도

【표 1】 6월과 7월(1~29일)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(1973년 이후 부울경 평균)

구분	6월		7월 1~29일	
	순위(상위)	값(°C/일)	순위(상위)	값(°C/일)
평균기온(평년비교)	1위	23.0(+1.6)	45위	22.3(-2.3)
평균 최고기온(평년비교)	1위	28.5(+1.8)	45위	25.8(-3.2)
평균 최저기온(평년비교)	2위	18.4(+1.6)	44위	19.8(-1.4)
폭염 일수(평년비교)	6위	2.1(+1.3)	46위	0.0(-4.3)
열대야 일수(평년비교)	6위	0.0(0.0)	42위	0.3(-1.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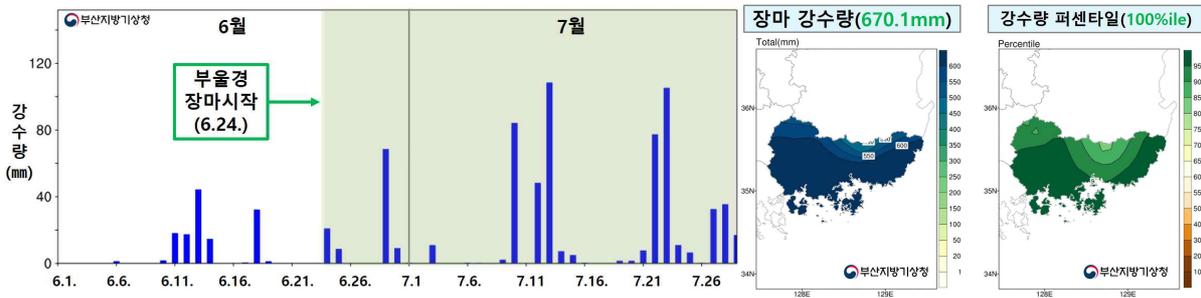
【그림 2】 6월과 (오른쪽) 7월 1~29일 지상 기온 편차(채색)

### □ 장마철(6. 24. ~7. 29.) 현황과 전망

○ 올해 부울경의 장마철은 6월 24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장마철 강수량은 670.1mm로 평년(387.8mm)보다 많으며, 1973년 이후 장마철 강수량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.

※ 부울경 장마철 기간이 가장 짧았던/길었던 해: 1973년(6일)/ 2013년(46일)

※ 부산 장마철 강수량(현재까지): 906.7mm (1973년 이후 상위 2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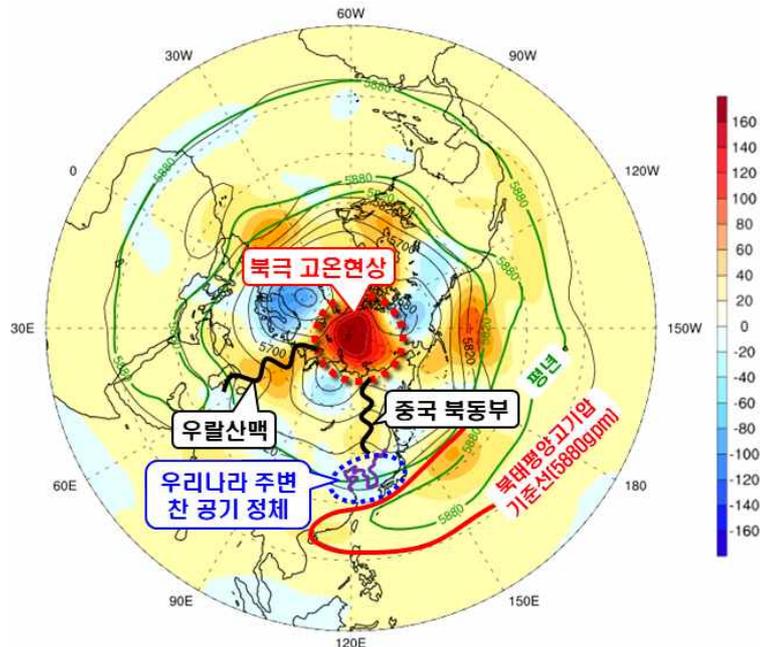


【그림 3】 (왼쪽) 6월~7월(29일) 부울경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, (오른쪽) 장마(6.24.~7.29.) 강수량과 퍼센타일\* 분포도

\* 퍼센타일(백분위):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,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임(평년 비슷 범위: 33.33~66.67 퍼센타일)

□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
- 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으로 우리나라 주변 찬 공기 정체하였습니다.
  - (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) 6월 말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블로킹<sup>1)</sup>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북서진하여 북극에 정체하면서 고온현상이 발생하여 중위도 기압계의 변동이 커졌습니다.
    - 우랄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고압대가 발달하여 동서 흐름이 느려지면서,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.
- (찬 공기 정체)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정체하여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에 머무르면서,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~남해안에 위치하였습니다.
  - 이로 인해,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, 장마철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낮 동안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
  - 또한, 중국 남부까지 동서로 길게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,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중부와 남부와의 지역 차이가 컸습니다.
  - 한편,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 확장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.



【그림 4】 7월 1~29일 500hPa(약 5.5km 상공) 고도(실선)과 고도 편차(채색)

1) 블로킹 또는 저지고기압: 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(서진하는 경우도 많음)하는 키가 큰 온난고기압

- (중국과 일본 폭우) 6월 이후 정체전선이 중국중남부~남해면바다~일본열도에 위치하여 중국(장강 일대)과 일본(규슈 등)에서는 두 달여간 지속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  -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중국 중·남부까지 동서로 길게 확장한 가운데,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정체 전선이 지속되었습니다.

## □ 8~9월 기상전망

- 기압계 변화 상황
  - (티벳 눈덮임 영향) 봄철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아 7월 하순부터 티벳 고기압의 영향을 예상했으나, 중국 지역에 장기간 강수가 이어지면서 지면 가열이 억제되어 티벳고기압의 확장 지연되었습니다.
  - (북극 해빙, 블로킹) 7월 현재 북극 해빙이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중위도 지역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우랄산맥과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가 정체되었습니다.
  - (엘니뇨/라니냐) 여름철 동안 중립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,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지연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 확장 억제
- (기온 전망) 평년(23.3℃)보다 0.5~1.5℃ 높겠고, 8~9월 폭염 일수는 평년(7.0일)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
  - ※ 부울경 폭염일수(최고기온 33℃ 이상): (평년) 7.0일, (2018년) 13.4일, (2019년) 10.3일
  - ※ 부울경 열대야일수: (평년) 3.8일, (2018년) 9.4일, (2019년) 6.7일
  - (8월) 장마철에서 벗어나 차차 기온이 상승하면서 평년(25.4℃)보다 기온이 1.0~1.5℃ 높겠습니다.
    - ※ 8월 부울경 평균최고기온: (평년) 30.2℃, (2018년) 32.3℃, (2019년) 31.1℃
  - (9월)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 중국내륙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으며, 낮 중심으로 더운 날이 많아 평년(21.0℃)보다 0.5~1.0℃ 높겠습니다.
    - ※ 9월 부울경 평균최고기온: (평년) 26.4℃, (2018년) 25.3℃, (2019년) 26.7℃
- (강수량 전망) 평년(348.7~549.6mm)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향을 보이겠으며,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.
  - ※ 부울경 강수량 평년비슷 범위: (8월) 204.2~330.3mm, (9월) 88.9~252.1mm

## □ 향후 장마철 전망

-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울경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장마철은 7월 31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이후에도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.
- 지역별 장마철 전망
  - (제주도) 7월 28일에 장마철이 종료되었습니다.
  - (중부지방) 정체전선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8월 1~3일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고, 정체전선이 북한지방으로 북상하는 4~5일 전반에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이후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는 5일 후반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, 중부지방은 8월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- ※ (변동성) 다만,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북쪽의 건조공기 강도에 따라 중부지방의 장마철 종료 시기가 매우 유동적이니,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